제2강 불교 발생 당시의 내부 엿보기

(1교시)J_stJo01_030903_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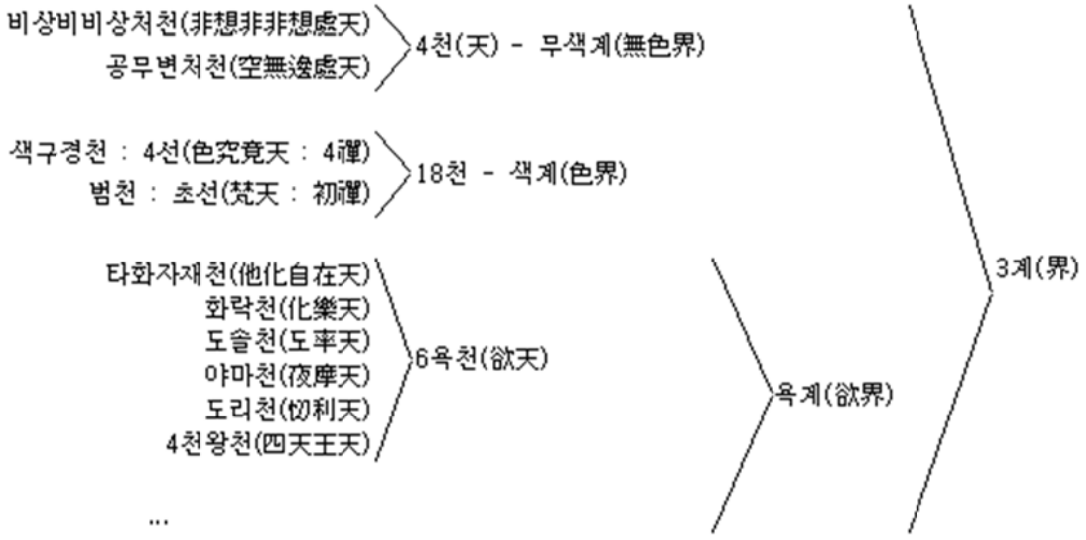
◎ 불교는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서양에서의 신(God): 유일신. '神'.

인도에서의 신(deva): 하늘에 있는 존재. '天'.

이때 하늘은 33개로 '33天'이라 한다. 욕계의 일부분에도 몇 개의 하늘이 속해 있으며 이 중 하나가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갖추어진 곳인 도솔천(Tusita)이다. 이러한 하늘에 사는 모든 존재를 Deva라 한다.

이처럼 서양의 신(God)은 인도의 신(deva)과 비슷하나 본질적 의미에서 다르므로 "불교에 신이



있느냐?"는 물음은 불교를 외적에서 바라보았을 때 발생하는 질문이다.

◎ 3계 구성도

◎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 차이점

기독교: '신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 '이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 message

불교: '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되, 자신이 부처와 똑같이 되어야한다' = '내(붓다) 경험을 너희

들도 하라' = teaching

기독교의 message는 그 자체가 성스러운 것인데 반해(말씀의 종교) 붓다의 가르침은 말씀 그 자체로 성스러움을 포함하지 않는 가르침, 즉 teaching이고 그 맥락에서 불교의 경전은 '지도'의 개념이지 성스러운 bible과는 다르다.

(2교시)J_stJo01_030903_02

◎ 붓다도 전두엽에 상처를 입으면 중생이 되는가?

의학적이고 이성적인 입장: 뇌는 마음 상태를 관장하는 기관이므로, 전두엽에 상처를 입는 다면 붓다도 중생이 될 수밖에 없다.

불교 전통 내의 입장: 붓다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한 인간이 현세에 고통과 재앙을 당하는 것은 과거 행위의 잘못에 대한 '업'이다. 붓다는 이미 해탈한 사람이므로 중생으로 돌아가는 재앙을 당할 수가 없다.

◎ 붓다도 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u>연기법</u>

붓다 역시도 과거(전생)의 잘못이 있으며, 이 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붓다의 육체적 고통은 업의 기계적인(mechanical) 인과율을 말하고 있으며 스스로 그것을 증명한 것이다.

붓다도 우리와 같은 몸뚱이를 갖고 태어나 생물학적인 제약 속에서 삶을 살았다. 몸뚱이를 갖고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다. 붓다로 태어나 깨달음을 얻은 것이 열반이요, 이는 마음의 평정을 얻고 내세에 윤회하지 않음을 말한다.

◎ 초기불교에 나타난 붓다의 인간적 모습

초기불교에서는 같은 생활 속에서 본 붓다를 그대로 기록하여 이러한 붓다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만 불교가 전파되고 지리적, 시간적으로 멀어질수록 붓다는 점점 추상화되고 신격화된다.

붓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 번 등장하는 **마라**는 붓다 마음에서 일어난 유혹으로 해석 가능하고 이는 붓다의 인간적 모습을 보여준다.

붓다가 깨닫기 직전에도 마라가 등장하여 종교적 사명을 단념시키려 한다. 그러나 붓다는 이를 물리치고 깨닫는다. 이 때 붓다가 취한 모습은 오른손을 무릎위에 늘어뜨리고 왼손으로 옷자락을 쥐고 있는 형태로 이를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이라 하고 '땅이 증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

다.

◎ 서양식 사고관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는가

서구의 문헌학은 석가모니의 역사적 고증 문제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침.

BC 3-4세기경 아쇼카王의 석주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새겨진 것을 발견.

이러한 객관적인 문헌학적 검증과정을 통해 **불교의 역사성**이 차차 밝혀지게 되었다.

-> 불교의 가르침은 모두 붓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후대에 첨가되고 발전된 것이 많다는 사실, 스리랑카나 티벳, 한국의 불교가 하나의 흐름을 갖는다는 것 등.

* 아쇼카王은 기원전 3세기반경에 고대 인도 최초의 통일국가를 건설한 국왕으로 그는 동인도의 가링가전에서 쌍방 모두 수십만명의 전사자를 낸 것을 보고, 전쟁의 비참함을 통감하고서, 불교에 귀의했다. 불교의 깊이 귀의한 아쇼카왕은 각지에 성수(聖獸)를 조각하여 올려놓은 석주를 건립했다.

(3교시)J_stJo01_030903_03

불교 내부의 사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기(緣起)와 중도(中道)

◎ 중도(中道)의 세 구분

1. 고(苦)와 락(樂)의 중도(수행의 문제)
2. 단(斷)과 상(常)의 중도(실재/윤회의 문제)
3. 우연론과 필연론의 중도(자유의지의 문제)

1. 고(苦)와 락(樂)의 중도(수행의 문제)

붓다는 29세에 출가하여 수행자들 무리에 합류. 당시의 수행은 고행주의로서 육체에 고통을 가함으로서 정신적 정화를 얻으려고 함. 붓다 역시 깨닫기 이전에 이를 경험했으나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다.

붓다는 문득, 편안한 가운데서도 깊은 사색을 할 수 있었던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극단적인 고행이 깨달음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붓다는 고행을 그만두고 산에서 내려와 수자타의 우유를 마시고 몸을 씻은 후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얻게 된다.

붓다가 고행을 하던 시절 그에겐 다섯 명의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붓다가 고행을 그만두자 타락했다며 그를 떠났었다. 붓다가 깨달은 후 이들에게 한 말은 "고락의 중도" 였다. 이는 당시의 수행 풍토에 대한 선구적인 이야기였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두가지 극단이 있으니 출가자들은 이를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 하나는 모든 애욕에 탐착하는 것을 일삼는 것이니, 그것은 열등하고 세속적인 범부의 짓이다.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되는 바가 없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짓을 일삼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니, 이 또한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되는 바가 없다. 비구들이여! 여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원만히 잘 깨달았다. 중도는 눈을 뜨게 하고 앎을 일으킨다. 그리고 고요함과 뛰어난 앎, 바른 깨달음과 열반에 도움이 된다."

2. 단(斷)과 상(常)의 중도(실재/윤회의 문제)

당시에는 브라마니즘과 단멸론자들이 양 극단을 이루고 있었다.

브라마니즘: 우파니샤드로서, '범아일여(梵我一如)' 를 주장.

범- 브라만으로 우주적 실재 / Cosmic Energy, Cosmic Reality

아- 아트만으로 개체적 실재 / Micro, soul

브라만과 아트만이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해탈이요, 아트만을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때 아트만은 모든 것을 보기만 하지, 보는 대상은 되지 않는다.

단멸론자: "모든 것이 생겼다 없어질 뿐, 그 안에 실재는 없다. 고로 도덕적 인과율이란 없으며, 무상한 것일 뿐이다."

붓다는 이들의 중도에 서서 '연기' 의 법칙을 발견했다. 모든 것들은 연기에 의해 변화할 뿐, 배후의 실재란 없는 것이다. 여기서 **현상적 경험 자체가 '나' 지, 그 배후에 실제적인 '나' 는 없다는 무아론이 발생**하게 된다.

A -> B -> C -> D -> E

단멸론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실제로 부정한다. 그들은 A와 B의 관련성조차도 부정한다. 전변설은 변화는 주재하는 어떠한 실재가 있고, 그것이 끝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브라만의 철학이 이에 해당된다. 불교는 '연기'를 통해 A가 원인이 되어 B가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말한다. 즉 앞뒤의 인과적 관련성은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후 실재는 부정한다. 모든 변화는 현상적으로 주어진 조건에서 만들어가되, 이는 그 전 찰나에 인연이 되어 만들어져 나간 것일 뿐이다.

<참고자료-학생 프로토콜>

(1)

제2강 불교 발생 당시의 내부 엿보기

응용동물과학과 98학번 M 학생

§ 불교와 여타의 종교와의 비교

불교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위한 방법으로 여타의 종교와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신(God, 神)의 개념정의

기독교에서의 God은 유일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유일신 적인 신이다. 이와 달리 우리말에서의 신은 '귀신, 신 내렸다'와 같은 말을 할 때 쓰이는 신으로 영어의 God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면 불교에서의 신은 어떤 개념일까를 알기 위해 불교에서 기본 전통으로 인정하고 인도에서의 신을 의미하는 Deva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Deva는 天으로도 번역 가능하며 하늘에 있는 존재로 개념을 정의 해야한다. 여기에서 언급된 하늘은 기독교에서는 지상과 구분되는 하늘인 천국을 의미하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옥황상제가 있는 혹은 영혼이 가 있는 하늘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하늘이 여러 개이고 33개의 하늘이 있어 이를 '33天'이라 한다. 불교의 세계관에 따르면 각기 하늘들은 지옥 위로부터 욕계, 색계 그리고 무색계에 속해 있으며 각각 대칭적 구도를 하고 있다. 욕계의 일부분에도 몇 개의 하늘이 속해 있으며 이 중 하나가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갖추어진 곳인 도솔천(Tusita)이다. 이러한 하늘에 사는 모든 존재를 Deva라

한다. 이와 같이 Deva와 God은 본질적 의미가 틀리므로 “불교에 신이 있느냐?”는 불교를 서양에서 보고 묻는 질문으로 있다 없다 말하기는 어렵고 붓다는 기독교에서의 God과 같은 의미로 인정되지 않는다.

-message와 teaching

기독교에서의 신의 가르침은 message이며 이를 따라가면 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되 붓다가 되라고 말한다. 이는 ‘내가 깨달은 대로 깨달아라’라고 표현 할 수 있으며 내 경험을 너희들도 똑 같이 경험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다. 이 것은 기독교와 불교와의 근본적인 차이 중 하나이다. 기독교의 message는 성스러운 것인데 반해 붓다의 가르침은 말씀 그 자체로 성스러움(sacredness)을 포함하지 않는 가르침 즉 teaching이고 불교의 경전은 지도와 같고 성스러운 bible과는 다르다. 이는 하나의 도구로서 강을 건너는 뗏목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은 베다(veda)의 전통과도 다르다. 베다는 말 자체에 성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다.

§ J 학형의 질문에 관하여

-전두엽을 다치면 붓다도 중생인가?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붓다의 전두엽이 상처를 입으면 붓다는 중생이 될까? 그렇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붓다도 중생이다. 이는 마치 ‘붓다가 두 눈을 잃으면 볼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이다. 그러나 불교의 전통 내에서는 붓다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과거행위의 잘못, 즉 업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 불교에서는 불교는 곧 연기법이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고 항상 특정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다. 이는 초기불교의 붓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붓다의 제자이자 라이벌인 데바닷타는 붓다의 암살을 여러 번 기도하였다. 데바닷타가 바위를 밀어 붓다가 발을 다친 것을 보고 한 학파는 이는 붓다의 과거 잘못으로 기인하고 이러한 업은 붓다도 피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또한 붓다는 입적을 앞두고 식중독의 고통을 겪는다. 이 고통도 붓다의 과거 업으로부터 기인하고 이는 업의 mechanical한 인과율이다. 초기 불교에서 부처는 우리랑 똑같은 생물학적 제약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고 이 생물학적 제약 또한 업으로서 기인한다고 본다. 육신의 몸을 벗어던진 것을 완전한 열반이라 하고 붓다 또한 이러한 업의 제약성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이와 다른 해석을 한다. 초기불교에서는 같이 있으면서 붓다를 보았지만 멀리 떨어지며 신격화 종교화를 겪은 것과 연관이 있다. 붓다 앞에 여러 번 등장하는 마라는 붓다 마음에서 일어난 유혹으로 해석가능하고 이는 붓다의 인간적 모습을 보여준다.붓다가 깨닫기

직전 마라가 등장하여 세속적인 권력과 교환하려는 조건으로 종교적 사명을 단념시키려 한다. 그러나 붓다는 이를 물리치고 깨닫는다. 이 때 붓다가 취한 모습은 오른손을 무릎위에 늘어뜨리고 왼손으로 옷자락을 쥐고 있는 형태로 이를 항마인(降魔印)이라 하고 '땅이 증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선정과 삼매를 이루어주는 전두엽을 자극하는 건전한 마약을 복용하면 그것이 깨 달음인가?

우울증은 Projac이라는 치료약을 먹어 해결이 가능하다. 우울증은 신경전달 물질이 과도 하게 분비되어 발생하는 병으로 심인성이 아니고 chemical balance의 문제에 기인한다. 이처럼 전두엽을 자극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이 개발되어 이 약을 복용함으로서 사람이 선정과 삼매에 이른다면 그것이 깨달음일까? 아니다. 그 약으로 선정과 삼매에는 도달할 수 있겠지만 붓다의 행위는 만들 수 없다. 선정 일어날 때 특정 신경 전달물질 A가 생긴다고 가정할 때 A가 있어도 붓다는 아니다. A는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붓다의 깨달음은 만들 수 없다.

§ C 학형의 질문에 관하여

불교를 받아들이는 서양식 사고관이 불교의 이해에 장애물이 되기만 할 뿐인가? 그렇지 않은 예로 서구의 문헌학을 들 수 있다. 인도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알게 된 것은 서구의 문헌학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그들은 역사적 고증은 생각도 못했으나 서구 사람들의 역사적 실재를 검토하려는 의문으로부터 20세기 초 실제의 존재가 증명되었다. 산스크리트 문헌학자인 France Senart는 '붓다는 신화다.'라고 주장했지만 아쇼카 왕의 석주가 발견되며 붓다의 실재가 증명되었다. 이와 같이 문헌학에 의해 불교는 역사성을 갖는다.

§ 불교 내부와 발생 당시 사상들과의 비교

불교 내부와 불교가 발생할 당시 인도에서 유행한 사상들과의 비교를 통해 불교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불교 내부의 사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기(緣起)와 중도(中道)이다. 여기서 중도는 극단이 아닌 가운데를 의미하고 극단을 알아야 가운데를 알 수 있다. 불교가 발생할 당시 사상적 철학적 논점은 내가 누구인가와 나의 행위와 결과의 관련성에 관한 물음에 중심이 놓여있다. 이러한 모든 사상과 철학적 논점을 하나의 극단으로 이야기한 후에야 비로소 중도에 설 수 있다.

-고(苦), 락(樂)의 중도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수행승 들이여, 세상에는 두 개의 극단이 있다. 수행자는 그 어느 쪽에 기울어져도 안 된다. 두개의 극단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관능이 이끄는 대로 욕망의 쾌락에 빠지는 것인데, 이것은 천하고 저속하며 어리석고 무익하다. 둘째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데 열중하는 것인데 이것은 괴롭기만 할 뿐 천하고 무익하다. 수행승들이여, 여래는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 중도에 의해서 통찰과 인식을 얻었고, 번뇌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난 적멸과 깨달음과 눈뜸과 열반에 이르렀다.”

여기서 양극단이라고 한 것은 붓다 자신의 체험적인 반성인 동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활태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다. 붓다는 태자이던 시절에 세 곳의 궁전에다 각각 많은 미녀들을 거느리고 온갖 욕망을 만족시키는 생활을 했다. 그러나 이런 생활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아무도 모르게 성을 빠져나와 수행자들의 무리에 끼어들었다. 붓다도 다른 수행자들과 마찬가지로 6년 동안 갖은 고행을 했다. 음식을 너무 제한하여 아사 직전까지 이르는 수행도 했고, 호흡을 억제해 숨이 거의 멎는 데까지도 시험해 보았다. 그러던 중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봄철의 농경제에 참가한 태자(붓다)는 흙과 땀에 젖어 헐떡거리며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애처롭게 보았고 그보다도 태자의 마음에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가래로 파헤친 흙 속에서 벌레가 꿈틀 나타나자 어디선지도 모르게 새가 날아와 벌레를 쪼아먹는 것이었다. 이를 산 것끼리 서로 잡아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참혹한 사실이라 생각한 태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가까운 숲에 들어가 나무 아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 때 태자는 정신과 육체가 편안한 상태에서 고통없이 깊은 사색을 체험하였다. 고통이 있어도 그러한 체험을 못했다는 것을 생각한 붓다는 6년 동안 깨달음을 위해 한 실패의 연속인 고행을 던지고 우유죽을 먹고 목욕 후 보리수 앞에 앉아 1주 동안 명상 후 깨닫게 된다.

-단(斷), 상(常)의 중도

불교가 발생할 당시 우리 존재의 실존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의견 중 당시를 대표하는 사상적 유파로 브라흐마니즘을 들 수 있다. 이는 우주적 실체와 개체적 실체가 일치한다는 범아일여(梵我一如)를 설명하는 경전인 우파니샤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는 macro한 것으로 상(常), 브라만, Cosmic Energy, Cosmic Reality 등을 나타내고 후자는 micro한 것으로 자아, 아트만, 영혼이 실재하는 것, 모든 경험의 배후에 있는 나 등을 나타낸다. 즉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아(아트만)가 우주의 궁극적인 실재(브라만)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자유사상가로 허무주의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斷’을 주장하며 모든 것은 무상하며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두 사상을 다 극복하고 중도로서 붓다가 주장한 것이 연기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고 항상 특정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다.

A→B→C→D

A를 진흙이라 가정했을 때 진흙은 다양한 모양으로 바뀔 수 있다. 이를 B, C, D라 하자. 이때 현상의 배후에서 진흙은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현상의 배후에 불멸의 실재 즉 아트만이 있다는 것이 브라흐마니즘의 현상과 실재이다. 이와 반대로 허무론자들은 A, B, C, D의 상호간 어떤 관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기는 A와 B, B와C 그리고 C와D의 즉 앞뒤의 인과만 인정하고 붓다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한 변화이고 변화하지 않는 배후의 실재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물이 컵의 모습에 따라 모양이 바뀌듯이 인간 존재도 보는 것이 나이고 걷는 것이 나 일뿐 배후의 자아는 없다.

§ 질문

각각 종교와 그 언어마다 신(God, 神)의 개념 정의는 틀리고 특정 종교나 언어의 개념 정의를 이용하여 다른 종교에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긴 힘들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신을 '우리가 복을 바라는 혹은 비는 대상이 되는 절대자'라고 정의 한다면 불교에 신은 존재합니까? 만약 존재하지 않다면 과거와 현재의 불교에서의 기복은 언제 어디서 유래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문헌

John M. Kooler, 『인도인의 길(The Indian Way)』, 허우성 옮김, 소명출판, 2003
와타나베 쇼코, 『불타 석가모니』, 법정 옮김, 동쪽나라, 2002

(2)

제2강 불교 발생 당시의 내부 엿보기

철학과 02학번 M 학생

지난시간 프로토콜에 덧붙여...

- 불교는 종교인가

조성택) 불교는 여타의 종교(기독교)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학생 C) 유일신의 유무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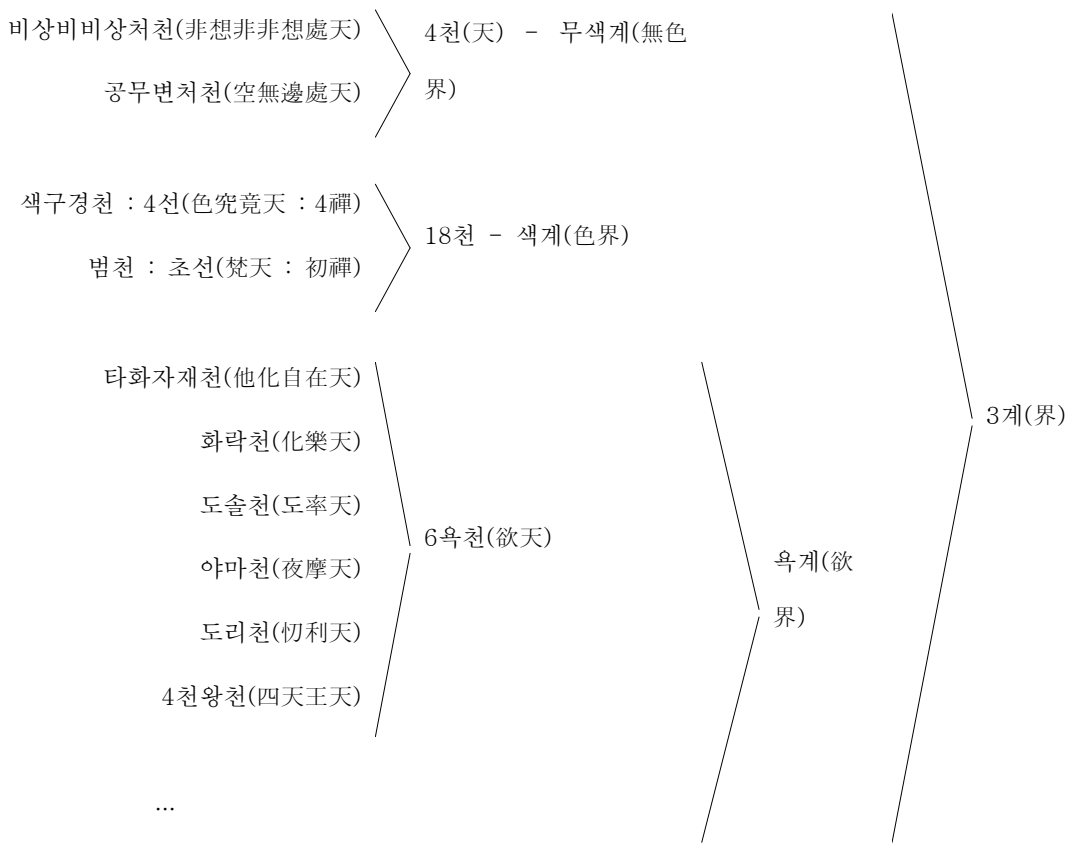
조성택) 서양에서의 신(God)은 유일신을 의미하며, '神'으로 번역된다. 반면에 인도에서의 신(deva)은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뜻으로 '天'으로 번역된다. 주의할 점은 이때의 하늘은 단 하나뿐인 하늘이 아닌 여러 가지로 존재하는 하늘이며, 각각 계층적 구조를 띄고 있다.

--> 천상(deva : 신의 세계) : 천계는 인간세계 이상의 세계이다. 이 속에 <베다>의 여러 신들이 '33천'이란 이름으로 편입돼 있다. 그 중 대장은 제석천(帝釋天)으로, 4천왕을 거느리고 불타를 받들고 불교를 보호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을 소임으로 한다. 대자제천(大自在天)은 힌두교의 주신인 쉬바다. 지옥의 주재자인 염마(閻魔)는 야마천(夜摩天)이란 별명으로서 도리천과 범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다> 및 힌두교의 잡다한 신들이 이 시대에 따라 첨가되어 天(=신)의 이름으로 불렸고, 공간적으로는 하늘 높이 위치하는 세계로서, 그곳에 그 권속의 중생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이해되어 왔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도솔천(tusita)'이다. 잠시 불교의 우주관을 살펴보자. 불교에서는 세계를 무색계, 색계, 욕계로 나눈다. 무색계와 색계가 소위 말하는 하늘이며, 욕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 그 밑이 지옥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욕계에도 하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신라 시대 '도솔천'이 바로 그것이다. 도솔천이란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갖추어진 곳으로, 여기에 미륵부처가 살고 있다고 믿었다. 도솔천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곳이나, 욕계에 속하는 낮은 단계의 하늘이다.

--> 3계는 <베다>의 천(天)-공(空)-지(地)의 3계란 말처럼 신들은 수직으로 배치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선정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고차원적 관념이 추가되었다. 선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욕망을 수반한 일상적 의식의 세계인 '욕계(欲界), 선정에 따라 욕망은 제거됐으나 관계가 아직 남아 있는 '색계(色界)', 그 위에 육체의 속박을 벗어난 자유로운 정신만의 무색계(無色界)란 3단계를 상정하여, 여기에 신들의 세계를 배치한 것이다.
이와 같이 3계는 말하자면 정신의 높이를 시사하는 것인데. 선정에 들어감으로써 목정이 달성된다고는 할지라도, 선정에서 깨어 나와서 평상의식으로 되돌아온다면 또다시 욕계로 되돌아오는 셈이다. 그러나 선정에 드는 것과 사후세계가 혼동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색계 신의 세계에 드는 것은 오히려 해탈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기도 했다. 즉, 불교적 가치관에서 말한다면 3계는 결국 윤회 세계에 속해 있다고 보는 것이다.

*3계 구성도



이처럼 서양의 신(God)은 인도의 신(deva)과 비슷하나 본질적 의미에서 다르다. 불교에서 신의 유무에 대한 질문은 불교를 외적에서 바라보았을 때 발생하는 질문이다. 유일신적 의미에서 '부처'는 불교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단순 비교는 힘들다.

-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 차이

불교와 기독교는 예수(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독교는 '신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의 가르침은 'message'로서, 이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므로 하느님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 반면에 불교에서는 '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되, 자신이 부처와 똑같이 되어야한다'고 말한다. 이때의 가르침은 'teaching'으로서, 내(붓다) 경험을 너희들도 해달라는 것이 된다. 따라서 가르침 자체가 성스러운 것은 아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경전 역시 '지도'일 뿐, bible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불교의 입장은 인도 전통 내 베다의 전통과도 구분된다. 베다는 베다 음운을 가진 말 자체가 성스러움을 갖는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뗏목이론'이다.

--> "以是義故 如來常說 汝等比丘 知我說法 如筏喩者. 法尙應捨 何況非法"

"이런 뜻인 까닭에 여래가 항상 말씀하시되, '너희들 비구들아, 나의 설법이 뗏목의 비유와 같음을 아는 자는 법까지도 응당 버려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에 있어서랴.'고 하신 것이다"

: 이것은 도피안(倒彼岸)을 위한 방법론을 설명한 비유이다. 즉 생사윤회의 이 언덕에서 청정무구의 저 언

덕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수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한 뗏목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언덕에 도달한 후에는 뗏목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이미 적멸한 본처로 귀환한 이상 '집착을 버려라' 따위의 가르침은 결국 또 다른 집착일 뿐이다. 이것은 철저한 자유의 경지를 비유로 표현한 것이다.

- 불교는 철학인가

콘즈는 불교를 '심리학적 성향을 지는 변증법적 실용주의(dialectical pragmatism with psychological tern)'으로 규정한다. 이때의 성향(tern)이란 일종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 프로토콜 질문들에 대하여

학생 J) 붓다도 전두엽에 상처를 입으면 중생이 되는가?

조성택) 그렇다. 위의 질문은 '붓다는 눈알이 빠져도 볼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과 같다. 뇌는 마음 상태를 관장하는 기관이므로, 전두엽에 상처를 입은 다면 붓다도 중생이 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불교 전통 내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불교 전통 내에서는 붓다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불교에서는 한 인간이 현세에 고통과 재앙을 당하는 것은 과거 행위의 잘못에 대한 '업'이다. 붓다는 이미 해탈한 사람이므로 중생으로 돌아가는 재앙을 당할 수가 없다.
한 예로 붓다가 살아계실 적(在世時)에 여러 번의 암살 기도가 있었다. 붓다의 사촌 이복동생이자 라이벌 관계에 있는 Devadatta가 꾸민 것인데, 암살 기도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였다. 한번은 산위에서 길을 걸어가는 붓다에게 큰 돌을 굴렸는데, 붓다는 바위를 피했지만 발을 다쳐 피가 났다. 이는 붓다 역시도 과거(전생)의 잘못이 있으며, 이 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붓다가 죽기 전에 식중독과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붓다의 육체적 고통을 통해 업의 기계적인(mechanical) 인과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붓다도 우리와 같은 몸뚱이를 갖고 태어났다(초기불교).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잠이 오면 자야 하는 몸뚱이를 갖고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다. 붓다 역시도 생물학적인 제약 속에서 삶을 살아간 것이다. 고로 열반/반열반을 구분한다. 붓다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열반이요, 이는 마음의 평정을 얻고 내세에 윤회하지 않음을 말한다. 반열반이란 몸마저 벗어던진 상태를 말한다.

--> 열반은 범어로는 니르바나(Nirvana)인데 소리로 번역한 것이 열반이고, 뜻으로 번역해서 한자로는 적멸(寂滅). 무위(無爲). 무작(貿作). 무생(無生)이라고 한다. 모든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생사를 초월하여 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진리를 체득한 경지, 즉 해탈을 말한다.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반열반(般涅槃) 이라고 했는데 간단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비록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의 불길을 잠재워도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있는 한 완전한 열반은 이룰 수 없으므로 육체마저 버린 때라야 참으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죽음을 육체의 속박까지 벗어나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하여 대반열반 또는 반열반이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붓다의 인간적인 모습들은 초기불교에서 잘 나타난다. 초기불교에서는 같은 생활 속에서 본 붓다를 그대로 기록했지만 지리적, 시간적으로 멀어질수록 붓다는 추상화되고 신격화되었다. 가령 붓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 번의 마라가 등장한다. 하루는 붓다가 구걸을 하러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식량을 얻지 못했다. 이때 Mara가 등장하여 "지금 다시 돌아가면 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마라는 붓다 마음속의 유혹인 셈이다. 이때 붓다는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한다. "첫번째 화살은 누구라도 맞지만, 깨달은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붓다가 깨닫기 직전에도 마라가 등장하여 "여기가 인간의 한계이다"라고 유혹한다. 이런 마음의 모든 유혹들은 붓다가 깨닫는 순간 모두 사라진다. 통일신라 이후, 특히 조선시대의 불상 중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향하게끔 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은 붓다가 마왕의 항복을 받았을 때 취한 것이라고 한다.

--> 항마촉지인은 모든 악마를 굴복시켜 없애버리는 모습으로, 형태는 결가부좌한 채 선정인(禪定印)에서 오른손을 풀어 오른쪽 무릎 위에 얹고 손가락 끝을 가볍게 땅에 댄 것이다.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해서 배꼽 앞에 놓은 선정인 그대로이다.

아직 성도(成道)하기 전 석가모니는 보리수(菩提樹) 아래 금강좌(金剛座) 위에 결가부좌를 하고 선정인을 취하였다. 이때 제6천의 마왕 파순(波旬)이 만약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으면 일체 중생이 구제되고 자기의 위력은 당연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여 권속을 이끌고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하였다. 처음에는 미녀를 보내어 쾌락으로 석가모니를 유혹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마왕은 마침내 지하세계의 모든 군세를 동원하여 힘으로 석가를 쫓아내려 하였다. 마왕이 칼을 들이대면서 석가모니에게 물러나라고 위협하자, 석가모니는 '천상천하에 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이다. 지신(地神)은 나와서 이를 증명하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풀어 무릎 위에 얹고 손가락을 땅에 대었다. 그러자 지신이 홀연히 뛰쳐나와 이를 증명하였는데, 이때의 모습이 항마촉지인이다. 따라서 이 수인은 석가모니만이 취하는 인상이다.

다시 위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위의 질문을 거꾸로 해석하면, '약물치료를 통해 모든 사람이

붓다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또 다른 질문을 유추해 낼 수 있다. 한 예로 정신과에서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체내에 'projac'이란 약물을 투입한다. Projac은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신경전달물질이 뇌에 전달되어 그것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을 막고, 길항관계에 있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높여 마음의 상태를 되찾게 해준다. 붓다가 선정에 몰입했을 때에도 어떤 물질이 체내해서 분비되었을 것이므로, 이 물질을 인위적으로 체내에 투입한다면 붓다가 느꼈던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붓다가 느끼는 선정, 삼매를 느꼈다고 해서 붓다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화두, 깨달음 때에 뇌의 변화물질이 분비되는 것은 하나의 변화일 뿐, 다른 어떤 것들과 관련된 변화는 아니다. 그 신경전달물질이 하나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으나, 붓다의 행위를 만들지는 못한다.

학생 C) 불교를 받아들이는 서양식의 사고관이 불교의 이해에 장애물이 될 뿐인가?

조성택) 아니다. 서양의 사고관이 불교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예로 서구의 문헌학은 불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석가모니의 역사적 고증 문제는 동양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다. 20C초에 이르러서야 서양 문헌학자들이 석가모니의 존재를 고증해 냈다. BC 3-4세기경 아쇼카왕의 석주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새겨진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문헌학적 검증과정을 통해 불교의 역사성이 차차 밝혀지게 되었다. 불교의 가르침은 모두 붓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후대에 첨가되고 발전된 것이 많다는 사실, 스리랑카나 티벳, 한국의 불교가 하나의 흐름을 갖는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 아쇼카王은 기원전 3세기반경에 고대 인도 최초의 통일국가를 건설한 국왕으로 그는 동인도의 가링가전에서 쌍방이 모두 수십만명의 전사자를 낸 것을 보고, 전쟁의 비참함을 통감하고서, 불교에 귀의했다. 불교의 깊이 귀의한 아쇼카왕은 각지에 성수(聖獸)를 조각하여 올려놓은 석주를 건립했다. 석주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신들의 친애를 입은 자애로운 왕(아쇼카)은 즉위관정(灌頂)후 20년이 지나, 친히 이곳에 와서 공양을 올렸다. 이곳에서 붓다석가모니가 탄생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당의 울타리를 세우고, 석주를 건립시켰다. 이곳에서 세존은 나셨으니 룸비니일촌은 면세되고, 또한 수획고(收獲高)의 1/6의 세율을 1/8 로 감면 납부토록 한다"

--> 도올은 아쇼카를 싯달타의 종교적 이상을 세속적으로 구현시킨, 붓다의 충실한 추종자라는 일반적인 해석을 거부한다. 그는 싯달타나 아쇼카 모두 인도 역사에 나타난 각자(覺者)로서, 싯달타는 보리수 밑에서의 정좌 속에서 냉철한 사유로서 깨달음을 얻었고, 아쇼카는 피비린내 나는 인간 욕망의 극한적 상황에서 몸서리치는 떨림의 체험으로써 깨달음을 얻었으며, 양자 모두 자신의 깨달음 실천에 충실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식민지 시대의 불교학'이다. 서구적 방법론이 불교 본원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지금 우리는 컴퓨터(서구적 사고방식)를 통해 학문을 하고 있다. 비록 하드웨어는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소프트웨어는 우리 것으로 교체할 수 있다. 서구적 학문 방법의 문제점을 깨닫고,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교 내부의 이야기

- 중도(中道)

1) 고(苦)와 락(樂)의 중도(수행의 문제)

붓다는 29세에 출가하여 수행자들 무리에 합류하게 된다. 당시의 수행은 '고행주의(asceticism)'으로서 육체에 고통을 가함으로서 정신적 정화를 얻으려고 하였다. 이들은 고행을 극단까지 몰고 갔다. 붓다 역시도 깨닫기 이전에 이를 경험했다. 그러나 극단적인 고행의 정점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러한 고행은 육체를 괴롭히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붓다는 문득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출가 전 왕자의 신분으로 아버지와 함께 농경행사에 참석했었다. 그곳에서 그는 농부의 곡괭이질에 벌레가 찍혀 갈라지자, 바로 새가 그 벌레를 낚아채 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그는 자리를 옮겨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깊은 명상을 하게 된다. 고행중인 붓다는 이 당시를 떠올리며 그때는 편안한 가운데서도 깊은 사색을 할 수 있었다는 데에 생각이 이르게 된다. 이후 붓다는 고행을 그만두고 산에서 내려와 수자타의 우유를 마시고 몸을 씻은 후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얻게 된다.
붓다가 고행을 하던 시절 그에겐 다섯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붓다가 고행을 그만두자 변절했다며 그를 떠났었다. 붓다는 깨달은 후 이들을 찾아가 처음으로 한 말이 "고락의 중도"였다. 이는 당시의 수행 풍토에 대한 선구적인 이야기였다.

-->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두가지 극단이 있으니 출가자들은 이를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 하나는 모든 애욕에 탐착하는 것을 일삼는 것이니, 그것은 열등하고 세속적인 범부의 짓이다.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되는 바가 없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짓을 일삼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니, 이 또한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되는 바가 없다. 비구들이여! 여래는 이 두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원만히 잘 깨달았다. 중도는 눈을 뜨게 하고 앎을 일으킨다. 그리고 고요함과 뛰어난 앎, 바른 깨달음과 열반에 도움이 된다."

2) 단(斷)과 상(常)의 중도(실재/윤회의 문제)

당시에는 브라마니즘과 단멸론자들이 양 극단을 이루고 있었다. 브라마니즘은 우파니샤드로서, ‘범아일여(梵我一如)’를 주장했다. 범이란 브라만으로 우주적 실재를 말하며, 아란 아트만으로 개체적 실재를 말한다. 아트만은 ‘영혼’으로 이들은 영혼이 실재한다고 믿었다. 가령 진흙의 예를 들어 보자. 진흙을 반죽하여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진흙인 것만은 자명하다. 즉 하나의 실재가 여러 모양으로 변하지만, 그 실재는 변하지 않는다. 다양한 현상의 배후에 불변하는 실재가 바로 atman인 것이다. 브라만과 아트만이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해탈이요, 아트만을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때 아트만은 모든 것을 보기만 하지, 보는 대상은 되지 않는다. 반면에 단멸론자들은 모든 것이 생겼다 없어질 뿐, 그 안에 실재는 없다고 주장했다. 고로 도덕적 인과율이란 없으며, 무상한 것일 뿐이다.
붓다는 이들의 중도에 서서 ‘연기’의 법칙을 발견했다. 모든 것들은 연기에 의해 변화할 뿐, 배후의 실재란 없는 것이다. 여기서 현상적 경험 자체가 ‘나’지, 그 배후에 실제적인 ‘나’는 없다는 무아론이 발생하게 된다.

--> 우파니샤드의 사상가들은 아트만의 궁극적 실상 속에서 최종적으로 브라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자아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나라고 하는 피상적인 개별적 차별성이 사라지고 우주적인 브라만을 해후하게 되는 것이다. 아트만이 곧 브라만이요, 브라만이 곧 아트만이다..... 내가 곧 브라만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자들은 모든 욕망과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자기 자신 이외에 따로 두려워 할 아무 대상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아일여라는 말에는 아트만과 브라만의 분열이 전제되어 있다. 다시 말해 ‘합일’이라는 말의 가장 위험함 요소는 일자(一者)가 나의 존재로부터 타자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과 신의 분열이 전제되어 있는 한, 인간은 항상 비굴한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존재 밖에 있는 신을 죽이려 한다면 또 다시 나의 존재의 분열은 점점 심화되어 갈 뿐이다. 그 해결의 유일한 길은 바로 신을 생각하는 나, 나 아트만을 본질적으로 해소시켜 버리는 것이다. 상주, 불변, 단일의 동일자가 아트만으로서 나의 존재를 떠받치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이런 아트만의 무화(無化)가 바로 무아(無我)이다.

A -> B -> C -> D -> E

단멸론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실제로 부정한다. 그들은 A와 B의 관련성조차도 부정한다. 전변설은 변화는 주재하는 어떠한 실재가 있고, 그것이 끝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브라만의 철학이 이에 해당된다. 불교는 ‘연기’를 통해 A가 원인이 되어 B가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말한다. 즉 앞뒤의 인과적 관련성은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후 실재는 부정한다. 모든 변화는 현상적으로 주어진 조건에서 만들어가되, 이는 그 전 찰나에 인연이 되어 만들어져 나간 것일 뿐이다.

--> 인류의 철학적 사유에는 제일원인에 대한 탐구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현상은 무엇을 근본원인으로 해서 그렇게 나타냐고 있느냐는 것이다. 당시 브라만교에서는 그것을 범(梵)이라고 설하였다. 범은 일체의 창조주이며, 부(父)이며 자존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브라만교의 그런 주장은 모든 존재는 결과임에 동시에 원인이기도 한 상의상관성을 간과한 것이다. 남을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절대적 자존자는 이세상의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다. 거대한 천체로부터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는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면서 우주의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현상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다.

- 질문 : 우리는 윤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도올은 "불교가 윤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윤회의 설정 없이는 인간 삶의 도덕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선업에 대한 요구가 근원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업에 의한 윤회사상은 미래의 구원에 대한 기대 속에서 현세적으로 윤리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윤리적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는 효와 충의 유교사사상을 통해, 서양 사회는 기독교 윤리를 통해 현세적 삶에서 윤리적 근거를 나름대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윤회사상 없이도 수천년 동안 문명을 지속시켜 왔습니다. 더군다나 윤회는 아직 현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생명의 법칙이요, 모든 존재의 기반'이라는 불교의 윤회사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인도 사람들의 사고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 문명 사람들이 무명에 휩싸여 윤회라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윤회의 주체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불교의 무아론에 따르면, 현세에 '나'는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가 없는데 어떻게 현세의 '나'의 선업이 미래의 ' 나 '의 선과로 이어지며, 이러한 업 사상이 윤리적 구속력을 갖을 수 있는 것입니까?